

# 올 시즌 홈구장 등판 무산된 류현진 “캐나다 정부 결정 존중”

“코로나19 여전...안전 지키기 위한 결정”

청백전 등판해 5이닝 4실점으로 고전

캐나다 연방정부가 토론토 블루 제이스 구단의 홈 구장 사용을 불허한 가운데 에이스 류현진(33)은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캐나다 언론 스포츠넷과 MLB.com 키건 매더슨 기자 등에 따르면 19일(한국시간) 류현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하고 방역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이들이 많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캐나다 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토론토 구단은 마크 사피로 구단 회장 이름의 공식 성명을 통해 “캐나다 연방정부와 협상을 했지만 2020시즌 홈 구장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메이저리그에서 유일하게 캐나다에 연고를 둔 토론토는 그간 캐나다 연방정부에 시즌 중 선수단과 모든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자가격리를 면제해달라고 특별 요청했다. 시즌 중 토론토를 수시로 방문

해야 하는 토론토 선수단은 물론, 토론토 원정경기를 펼쳐야 하는 다른 메이저리그팀들 모두 자가격리가 없어야만 경기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앞서 토론토 주정부 차원에서는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졌지만 결국 연방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폐쇄한 연방정부 입장에서 야구단에만 예외를 둘 수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류현진의 토론토 홈 구장 등판도 올해는 무산될 전망이다. 이날 두 번째 실전경기를 소화한 류현진은 직후 현지 인터뷰를 통해 “(캐나다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하면서 의료진 등

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다. 그렇다면 올해 류현진이 마운드에 오를 임시 홈구장은 어디일까. 현재로서는 스프링캠프지 미국 플로리다 더니든과 신하 마이네리그트 리플 A 구단 버팔로 바이슨스의 연고지인 뉴욕주 버팔로가 후보로 꼽히고 있다. 한편, 이날 자체 청백전에 등판한 류현진은 5이닝 동안 7피안타(2피홈런) 4탈삼진 4실점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이 두 번째 자체 청백전 등판으로 앞서 지난 14일 첫 청백전에서는 5이닝 4피안타 4탈삼진 1실점을 기록한 바 있다. 홈런만 두 방을 허용하는 등 첫 등판에 비해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 FC서울 “기성용 입단 합의...오늘 메디컬테스트”

11년 만의 K리그 복귀 임박



기성용(31)이 친정 FC서울로 돌아온다. FC서울 구단은 19일 오후 보도 자료를 통해 “FC서울과 기성용이 입단 계약 조건에 최종 합의했다”

고 발표했다. 서울 측은 하루 전날인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포항스틸러스와의 경기 후 “기성용 영입에 근접했다”면서도 “최종적으로 합의할 내용이 남아 있어서 아직 확정은 아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 선수등록기간(22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합의를 마치고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측은 “기성용은 오는 20일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며 “구단은 메디컬 테스트 이후 계약 절차를 마무리하고 기성용의 입단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성용은 지난 2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과 계약을 해지하고 국내 복귀를 추진했다.

당시 기성용은 FC서울 복귀를 1순위로 삼았지만 불발됐고, 이후 전북 등과도 협상을 진행했으나 위약금 등의 문제로 무산됐다. 결국 기성용은 2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마요르카와 6월 30일까지 단기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성용은 마요르카에서 단 10분을 뛰고 지난달 말 귀국했다. 두 번째 국내 복귀 시도에서는 성사됐다. 한국에 돌아와 14일 자가격리를 마친 기성용은 최근 자신의 SNS에 “Time to work KI(다시 일을 할 시간)”라는 글을 올려 차기 행선지에 대한 궁금증을 키웠는데, 결국 친정으로의 복귀를 선택했다. 기성용이 서울에 입단하면 지난 2009년 셀틱 이적 후 11년 만에 K리그로의 복귀다.

## 강진군 ‘세계대학역도선수권’ 취소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고심 후 취소 결정

강진군은 지난 15일 주최측인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하 FISU)으로부터 “2020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 취소 확정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FISU 사무총장이자 CEO인 에릭 세인트루드는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의 다양한 면에서 아주 힘든 해였으며, 스포츠 세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FISU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안을 찾기 위해 심도있게 검토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수밖에 없

는 위기상황이라 아쉽지만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FISU가 주최하는 29개 종목의 세계대회 중 3월에 개최됐다가 중도 취소된 스피드스케이팅(네덜란드)을 포함해 모든 대회가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이승욱 강진군수(조직위원장)는 “지난해 4월 대회 유치를 시작으로 FISU 관계자 현지 실사, 경기시설 등 분야별 실행계획 수립, 대한체육회, 대한역도연맹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 17개 단체 500여 명의

군민자원봉사자 모집, 조선대학교와의 업무협약, 관내 도자기업체 등 국내외 관심과 군민의 응원과 참여로 착실히 대회를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취소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지금부터 중·고·대학부, 실업팀 등 동·하계 전지훈련 적극 유치, 내년에는 전국춘계대회 등 크고 작은 국내대회를 개최하고 동시에 2022년에 항가리로 결정된 상황이지만 올해 대회가 불가피하게 취소됐음을 감안해 강진군에서 다시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를 개최토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차기대회 유치를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 17시즌 만에 1부 컴백 ‘리즈’...챔피언십 우승까지

20년 만에 우승



‘리즈 시절’ 재현에 나선 리즈 유나이티드가 20년 만에 챔피언십

우승이라는 결점사까지 누렸다. 리즈유나이티드가 “2019-2020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 정상에 올랐다. 구단 측은 19일(한국시간) “2위 웨스트브로미치알비온이 허더즈필드타운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1-2 패) 이어 3위 브렌트포드도 스토크시티에 패(0-1)하면서 시즌 우승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26승9무9패 승점 87점을 기록중인 리드는 경쟁자들이 잇따라 패하면서 잔여 일정 결과에 상관없이 ‘챔피언십 챔피언’ 자격으로 EPL로 향한다.

명장 마르셀로 비엘사 감독과 시즌을 치렀던 리즈는 1923-24시즌과 1963-64시즌 그리고 1989-90시즌에 이어 4번째 챔피언십 트로피를 들어 올리게 됐다. 20년 만의 우승이다. 감격스러운 전리품과 함께 2003-2004시즌 이후 17년 시즌에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하는 리즈유나이티드다. 리즈는 2004년 챔피언십으로 강등된 뒤 2007년 리그1(3부리그)까지 떨어지는 수모를 당했다. 2010년 챔피언십으로 올라온 리즈는 다시 10년의 도전 끝에 드디어 EPL 승격이라는 결과를 맺었다.

## 전남체고 김건우, 화랑기 양궁대회 금빛 과녁 명중

남고부 90m 금메달...송려명 동메달 획득



남고부 단체전 준우승 전남체고(왼쪽), 동메달 순천고(오른쪽)

전남체고 김건우(3년)가 화랑기 양궁대회에서 금빛 과녁을 명중시켰다. 단체전에서 팀을 준우승으로 이끄는 등 맹활약을 했다. 김건우는 지난 18일 충북 청주 김수녕양궁장에서 끝난 화랑기 제41회 전국 시도대학 양궁대회

남고부 리커브 90m 퀼리피케이션에서 327점을 쏘 경복고 이선재와 함께 공동 우승을 차지했다. 송려명(전남체고 3년)도 김건우와 이선재에 한 점 뒤진 326점을 쏘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건우와 송려명의 활약속에

전남체고는 단체전에서 승전보를 올렸다. 전남체고는 남고부 단체전에 출전해 충북체고와 대전체고를 차례로 완파하며 4강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무거고등학교 또한 6:0으로 완파하며 결승에 진출한 전남체고는 결승에서 인천영선고에 아쉽게 4:5로 패하면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순천고는 4강전에서 인천영선고에 1:5로 패하면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남남도체육회 집행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 속에도 전남 양궁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생활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며 훈련에 임하고 힘든 훈련 환경 속에서도 잘 이겨내 주길 응원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 ‘전국종합핸드볼대회’ 2연승

대구시청 9점 차로 승리



점전 끝에 대구시청에 1점 차로 뒤지며 전반전을 10대11로 마감했으나, 후반전에 강경민(CB)과 원선필(PV)을 내세운 공격과 수비가 살아나며 대구시청과의 점수차를 벌린 끝에 9점 차로 승리를 차지했다. 오세일 감독은 “선수들이 지난 SK슈가글라이더즈와의 경기를 이

기며왔던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해줬으며, 그동안 훈련을 통해 견고해진 팀워크 및 체력이 오늘 승리의 요인이다.” 더불어 “광주시체육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선수보강과 선수 처우개선으로 경기력이 향상된 결과이다.”라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제17회 태백산기 전국종합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작년 제100회 전국제전 여자일반부 우승팀 대구시청을 가볍게 따돌리며 2연승을 거뒀다. 광주도시공사는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12시10분 강원도 태백세연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17회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 여자일반부 경기에서 대구시청을 28대 19로 이기며 지난 첫경기 SK슈가글라이더즈를 상대로 거둔 승리에 이어 두 번째 승리다. 이날 광주도시공사는 팽팽한

## 이승우, 친선전 후반 교체 투입돼 ‘경고누적 퇴장’

후반 15분 사이에 두 차례나 경고

벨기에 프로축구 싯트 트라위던에서 뛰는 이승우(22)가 친선전에 교체 투입됐으나 경고 두 장을 받고 퇴장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승우는 19일(한국시간)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주 겐 더루넨 스타디움에서 열린 2부리그 프리시즌 친선경기 베이스호트전에 후반전 교체 투입됐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그라운드를 밝은 이승우는 공격 2선에 배치됐

다. 이승우의 첫 번째 경고는 후반 27분에 나왔다. 역습을 당하는 상황에서 상대 선수 로리스 브로노를 잡아채 넘어뜨리며 심판이 카드를 꺼내게 했다. 그리고 난 뒤 후반 41분, 이번에도 브로노와 몸싸움을 펼치는 과정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았다. 결국 이승우는 경고 누적으로 퇴장 조치됐다.



소속팀 싯트 트라위던은 이날 베이스호트와 0-0으로 비겼다.